98

폐국균증의 임상적 고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권종범 · 심성보 · 박 건 · 김재길 · 김치경 ·
조건현 · 왕영필 · 이선희 · 곽문섭 · 김세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는 1991년 1월 1일부터 1995년 6월 30일까지 총 43예의 폐국균증을 치험하였다.

1. 성별분포는 남자 27예, 여자 16예이었다.
2. 주증상은 각혈이 36예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잦은 기침, 고열, 그리고 호흡부전 등이 있었다.
3. 발생부위는 우폐 상엽이 29예 (67%)로 가장 많았으며, 좌폐 상엽 11예 (26%) 그리고 우하엽의 순이었다.
4. 과거력상 폐결핵 치료를 받았던 경우가 26예 (60%) 이었으며 이중 3예는 활동성 결핵으로 치료중 이었다.
5. 기타의 동반질환으로서 급성백혈병 (9예), 당뇨병 (4예), 폐암 (1예), 기관지 확장증 (4예), 기관지 낭종 (1예), 신장이식 (1예) 등이 있었다.
6. 급성백혈병과 병발된 9예중 2예에서는 폐엽절제술 및 폐결핵 치료후 골수이식을 시행하였다.
7. 치료방법으로는 40예에서 개흉술에 의한 절제술(폐엽절제 20예, 폐구역절제술 5예, 폐부분절제술 13예, 전폐적출술 1예 생검 1예)을 시행하였으며, 3예에서는 폐기능이 저조하여 공동절제술을 시행하였다.
8. 수술후 합병증으론 창상감염, 기관지내 재출혈, 급성 간부전, 폐혈증 신농양 등이 있었다.